

## 공단-항산별 참살이 마을, 1사1촌 자매결연

- 공단,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교류활동 전개 -



공단은 지난 5일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항산별 참살이 마을(대표 김완순)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도농(都農)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김광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과 항산별 참살이 마을 대표 김완순 위원장 및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자매결연식을 마

친 뒤 김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콩 심기, 노인 가정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자매 결연을 통해 공단은 항산별 참살이 마을의 지역특산물 구입 및 농번기 일손 돕기, 농가 환경개선 봉사활동, 임직원 가족의 농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재 이사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항산별 참살이 마을과 공단이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도농상생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 대표 김완순 위원장은 "철도공단과의 자매결연으로 우리 마을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며 "철도공단 임직원과 가족들이 우리 마을에서 농촌체험을 하며 쉬어 갈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공단은 공단 내부통신망과 항산별 참살이 마을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참살이 마을 체험활동, 주변볼거리 및 민박, 먹거리 장터 등을 소개하여 자매결연 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궤도분야 현장기술지원 시공품질 확보

-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품질확보방안 모색 -

기술본부 궤도처(처장 최상영)는 지난 5월 30일 궤도분야 국산화 추진 일환으로 궤도전문가 5인이 경전선 반성~진주간 시험부설현장을 방문, 궤도분야 현장기술을 지원하였다.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는 경전선 반성~진주간 토공~교량~토공~터널에 걸쳐 약 888m에 시험부설될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전 구간 걸쳐 시행됨에 따라 시공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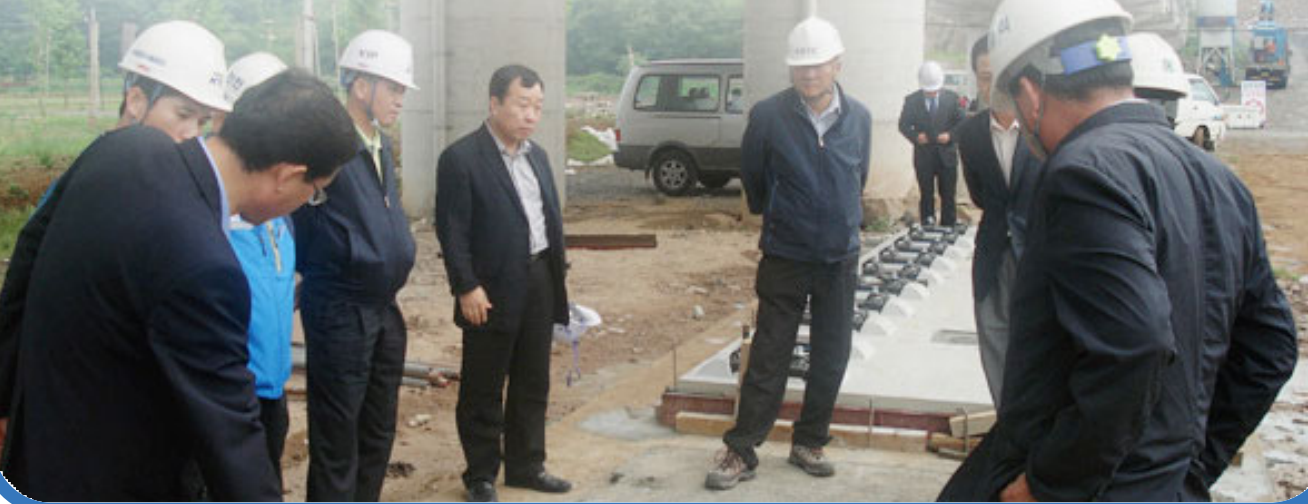
이에 따라 궤도처는 궤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시공 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확보방안 마련, 인터페이스, 안전관리 등 시공전반에 걸쳐 진단한 후 25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기술지원반을 주관한 이동호부장은 "경전선에 부설될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는 토공, 교량, 터널 전구간 부설되는 국내 최초 현장으로 시공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국산화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개발은 지난 2011년도에 공단, 철도연, 삼표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성능검증 1단계인 기술요건 적합성 심의를 '12.2월에 시행한 후 현재 시험부설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이에 궤도처는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궤도공사에 대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김시철 기자)



## 협력사와 안전 공감대 형성으로 "강원통" 조성

- 강원본부, 특별안전교육 실시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5월 22일 2012년 재해율 0% 달성을 위해 그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및 교재를 제작, 교육을 실시하였다.

석호영 건설처장 주관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협력사 책임감리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재를 활용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사와 안전공감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아울러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철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강원본부는 앞으로도 내부직원뿐 아니라 외부 고객과 지속적인 공감대 조성을 통한 "강원통"의 확산을 위하여 간부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강원본부 이성찬 기자)



## 장애인 가족과 늦~

- 충청본부 KR봉사단 장애인과 축구 관람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 KR봉사단은 지난 9일 사회공헌 후원기관으로 결연을 맺은 밀양 복지관(대천시 동구 삼성동) 장애인 및 가족과 함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대회를 관람하였다.

2002 한일월드컵 10주년 기념 대전-과달라하라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행사에 따라 대전시티즌 과 멕시코 명문 축구클럽 FC아틀라스 팀이 교류전을 가졌으며, 충청본부 KR봉사단은 밀양복지관 가족들을 초청하여 많은 관중들과 함께 합성을 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푸른 잔디위에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펼칠 때마다 박수갈채가 이어졌으며 응원 열기 속에 장애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스포츠의 묘미를 만끽하였다.

경기 결과는 대전시티즌이 2대0으로 승리하였으며 처음으로 축구 경기장을 찾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선물을 안겨 주는 등 뜻 깊은 주말 저녁을 보냈다.

KR봉사단은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 및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각종 지원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본부 김건조 기자)



## 원주~강릉 복선전철 3개 공구 낙찰자 결정

- 유찰 2개 공구 금주 중 재입찰 예정 -

공단은 '원주~강릉 노반신설 기타공사' 5개 공구에 대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 7·9·10공구의 적정업체를 지난 7일 선정하였다.

'원주~강릉 노반신설 기타공사' 5개 공구는 발주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의 오류 등을 입찰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처음 적용하였으며 입찰금액 심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계약평가로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총 140개 업체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중금액의 적정성 심사(1단계), 물량내역의 적정성 심사, 세부공종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2단계)를 단계별로 시행하였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모든 심사를 통과한 7, 9, 10공구에는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며, 6공구와 8공구는 공중금액을 부적절하게 제시한 35개사, 임의로 설계도면을 변경하거나 입찰조건을 위반하는 등 물량내역을 부적절하게 제출한 7개사, 세부공종 입찰금액 심사에서 80점 미만을 받은 14개사 등 총 56개사가 모두 탈락함으로써 유찰되었다.

이로써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 중 최장 터널구간으로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대관령터널(22km) 구간(9·10공구)의 시공사를 선정함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이번 3개 공구의 낙찰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강원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평균 10%로 462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번에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2개 공구는 금주 중 재입찰을 시행하여 이달 말까지의 낙찰자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반신설 기타공사 업체선정 현황

공구	구 간	연장(km)	사업비(억원)	심사결과
6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 평창군 용평면	8.8	1,989	유찰
7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 평창군 진부면	9.42	1,513	지에스건설
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원	7.48	2,131	유찰
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 평창군 대관령면	12.7	2,738	한라건설
1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 강릉시 성산면	9.4	1,958	삼성물산
계			10,329	

## 영남본부, 알찬 나눔의 열매를 가꾸다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1일 직원 23명은 원매결연을 맺은 원당마을을 방문하여 1사1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 직원들은 이날 이른 아침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일기예보에 비소식도 있어서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모두가 노심초사하며 약속된 집결지로 향하는 내내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하였지만, 다행히 우리의 선행을 하늘도 아셨는지 날씨가 점점 맑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약 1시간여 만에 도착한 원당마을(이장 전우태) 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보람찬 봉사활동을 다짐한 후, 5개조로 편성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각 조별 농기로 흩어진 직원들은 과수원으로 도착하자마자 사과열매 씨숙기 및 과일나무 주변 풀뽑기 등 봉사활동을 하였고, 하반기에 재차 농가 방문시 먹음직스런 사과를 수확하여 1사1촌 농가 및 많은 국민들에게 명품 열매를 사과의 시원함과 달콤함을 맛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초여름의 더운 날씨와 때로는 높은 곳에서 사다리를 타고 작업해야하는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마을 주민들도 손수 준비해 오신 빵과 각종 쌀음료수, 유기농 음식 등을 귀한 음식을 정겹게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는 등 이번 봉사활동으로 향후 하반기 더욱 알찬 나눔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약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계시판

## 주요뉴스(6. 4 ~ 6. 11)

- 투자 늘린 만큼 철도이용 늘리기 위해서는(서울신문 6. 4)
- 권도엽 "KTX 경쟁체제 도입 연내 마무리"(서울신문 6. 4)
- 철도시설공단, 기술사 등 인재 양성 총력(한국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6. 4)
- 양양 현남면 철도부지 캠프장 탈바꿈(강원도민, 강원일보 6. 4)
- 다시 그려야 할 복선철 이후 동해안(강원도민 6. 4)
- 서울~대전 KTX열차 오늘부터 추가 운행(충청투데이 6. 4)
- 천안역서 수도권 전철 탈선(조선일보 6. 4)
- 수인선 협계열차의 자멸과 소생(한국일보 6. 5)
- 철도공단 평가기준 개정 참여업체 사고시 불이익(충청투데이, 중도일보, 석간 아시아경제 6. 5)
- 모두가 동참하면 '여름 전력난'은 없다(조선일보 6. 5)
- 용산역세권은 돈먹는 하마(매일경제 6. 5)
- 지하공사로 열차탈선하는 한심한 현실(충청투데이 6. 5)
- "KTX 정읍역사 조기 신속" (전북일보 6. 6)
- 철도시설공-논산 참살이 마을 자매결연(대전일보 6. 6)
- 철도시설공단, 논산 항산별 참살이마을과 1사1촌 결연(충청일보 6. 6)
- 동순천~광양간 복선 전철화사업 21일 개통(광남일보 6. 6)
-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21일 순천역서 개통(무등일보 6. 6)
- KTX경쟁체제 도입은 창조 위한 변화대(광남일보 6. 6)
- 정부 '코레일 역사 국유화'...방만경영 수습 착수(조선일보 6. 7)
- 철도시설공단, 사회공헌 '사랑 운반' (충청일보 6. 7)
-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21일 개통(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광주일보, 국민일보 6. 7)
- KTX정읍역사 '축소신축'으로 가닥(전북일보 6. 7)
- 철도시설공 "공공기관 최고수준 봉사활동 펼칠 것"(파이낸셜뉴스 6. 8)
- 정부 "코레일 역사 국유화·관계권 회수"(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6. 8)
- 후순위 밀린 SOC사업 살리자, 손잡은 강원·경북(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6. 8)
- 오송에 철도기술연구단지 조성(중도일보 6. 8)
-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21일부터 개통(파이낸셜뉴스 6. 8)
- 원주~강릉 복선전철 시공사 선정(강원도민일보 6. 8)
- 한전·가스·인천공항 경쟁력 선진국보다 우수(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6. 9)
- "우리나라, SOC 선진국 되려면 갈 길 멀어"(조선일보 6. 11)
- 철도시설공 농촌문화 체험(대전일보 6. 11)
- 코레일 驛亭 이어 차량기지 23곳도 국유화 추진(조선일보 6. 11)
- 빛더미 북한(한국경제 6. 11)
- "춘천~속초 고속철 더는 미룰 수 없다"(강원일보 6. 11)

경조사

■ 경영지원안전실 경영지원팀 김영균부장 모친상  
- 발인 : 2012년 6월 13일(수)